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02

#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

(창세기 1:26~3:24)



하나님께서 드디어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어요.

**“가만 있자 땅에 있는 흙을 긁어 모아서 조물조물, 몸을 만들고.  
눈 두 개, 코 하나, 입 하나, 귀는 두 개! 이렇게 얼굴도 만들고.  
자, 이제 콧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어야겠다. 후~~~~~”**

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  
마침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탄생했어요!  
그 사람은 남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‘아담’이라고 부르셨죠.

**“아담, 네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.  
내가 며칠 내내 이 세상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더니  
이젠 하루 좀 쉬어야겠구나.  
너는 나 대신에, 내가 만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거라.  
믿어도 되겠지?”**

**신이 난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.**

**“헤헤! 너는 코가 길~쭉한게 아주 웃기게 생겼네!  
그럼 너는 코끼리라고 해야겠다!”**

1P



**“어? 너는 왜 소똥을 굴리고 다니니?  
별난 녀석들이 다 있구나. 너는 오늘부터 소똥구리아.  
어이 소똥구리! 소똥구리!”**

**“아직도 많이 남았잖아?  
너는 오리 같기도 하고... 너구리 같기도 하고...  
에이, 그냥 오리너구리라고 해.”**

**그렇게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 
그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.  
‘에덴동산’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, 풍족하게 살 수 있었죠.**

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은  
어쩐지 외로워 보였어요.

**“어휴, 아담 저 녀석 또 수풀 속에서 혼자 꾸꾸리고 자고 있구나.  
영 보기가 좋지 않아 찢찢찢.  
안 되겠다. 내가 아담을 도와 줄 짹꿍을 만들어줘야겠다.”**

아담이 곤히 잠든 사이  
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셨어요.

그리고 그 갈비뼈에 살을 붙여서 새로운 사람!  
‘여자’를 만드셨죠.

잠에서 깬 아담이 얼마나 신났을지  
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죠?

“헤헤헤! 짹꿍이다! 짹꿍! 내 짹꿍이야! 헤헤헤!  
가만, 내가 내 짹꿍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을  
지어줘야지!”

아담은 여자에게 ‘하와’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.



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쾅쾅쾅  
에덴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.  
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 예뻐하셨고  
두 사람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어요.

“사랑하는 아담, 하와야.  
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너희를  
위한 것이란다.  
포도, 망고, 구아바, 메론! 마음껏 따 먹거라!  
하하하하하!


**“아, 다만 한 가지! 똑똑히 듣거라.  
저기 저 커다란 ‘생명나무’가 보이지?  
저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 
‘선악과’란다. 너희가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.  
저 ‘선악과’만큼은 절~대로 먹어선 안 되느니라.  
저 열매를 먹으면,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!  
약속할 수 있겠느냐?”**

여러분,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?  
처음엔 그럴 것 같았어요.  
두 사람은 생명나무 근처에는 열씬도 하지 않았죠.



하지만 에덴동산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 
‘뱀’이 있었답니다!  
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갔죠.

“하와야, 저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  
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니?”

“뱀아, 그런 말 하지마!   
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 
하셨단 말야.”

**“켈켈켈켈. 너 그걸 믿니? 그거 다 뽕이야!  
저게 얼마나 맛있는데.  
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 
너희가 하나님처럼 위대해질까봐  
괜히 그러시는 거라구! 켈켈켈켈.”**

하와가 생명나무로 가서 그 열매를 보았더니  
과연 선악과는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무척이나  
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.

결국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죠.  
그뿐인가요? 짹짹 아담에게도 열매를하나 따 주었어요.

그렇게 두 사람은,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.  
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 
처음 느껴보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 차올랐답니다!

“아이, 부끄러워.  
너무 부끄러워서 이젠 하나님을  
만날 수 없을 것 같아! 에라 모르겠다.  
나무들 사이에 뽀뽀 숨어있어야겠어!”

평소 같으면 출썩맞게 돌아다녔을 아담이 보이지 않자  
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찾으셨어요.



**“아담아, 네가 어디있느냐?”**

**“하나님, 제가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, 숨어 있습니다!”**

**“부끄럽고 두렵다고? 아니 어째서!  
니가 설마 설마,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냐?”**

**“그게요 하나님, 저는 그냥 하와가 하나 먹어보라고 해서  
받아먹었을 뿐입니다..”**

그러자 옆에 있던 하와가  
얼굴이 벌개져서는 대답했어요.

“아담, 저 고자질쟁이!  
하나님, 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 
뱀이 저를 감쪽같이 속이는 바람에  
열매를 먹을 수 밖에 없었다구요.”

변명만 늘어놓는 두 사람을 보시면서  
하나님은 매우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.  
순수했던 아담과 하와가 악속을 어기다니  
실망하실 수 밖에요!

**“아담아, 하와야.  
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.  
이제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나와 함께  
살 수가 없게 되었다.  
지금 당장, 에덴동산에서 나가거라.”**

**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모든 풍족한 것들을  
잃게 된 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.  
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 
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 거죠.**



아참, 하와를 속인 뱀은 어떻게 됐냐구요?

하나님께서 뱀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.  
이 때부터 뱀은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 
평생 흙먼지를 먹으며 살아야했습니다!